2026-01-18-icsc 핵심예배 메시지 녹취

말씀구절: 마4:18-22
말씀제목: 나를 따라오라

들어가는 말씀
우리 한권사님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 은혜가 되었다. 청결한 양심이란 말이 떠오른다. 여선교회 회장직도 잘 하실줄 믿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나를 따라 오너라 이다. 그러면 다 되는것 아니겠는가?

1)신자의 모든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것이 아닌것이 하나도 없다. 눈에 보이는것 안보이는것 구분없다.
2)당연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앞서가면 무조건 실패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따라가야 한다. 말씀을 받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평소에도 말씀을 주실것이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교회에도 간증할 만한것이 많이 있을것이다.
3)당연한것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것이다. 창3장 영향을 받고 있기에 이것도 보통50%정도 경우도 있다. 이런것에 우리는 복음안에 들어와 진짜로 많이 고쳤다. 정말로 복음이 귀하다. 아마 전부 인정을 하실것이다 세월이 갈수록 진짜 복음이 감사해. 그전에는 여기 저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4)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오라고 하셨다. -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 일단 갈등이 없어진다.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것이 대단하다. 마음에 언약이 들어와 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즉시로 답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속에서 일단 정복이다. 이것은 눈에 안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만 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문제가 일단 사라져 버린다. 오늘 우리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1.2026년에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실것이다. 매일, 항상, 새해가 바뀌었으니 새일을 행하실것이다.
1)제일 먼저 우리가 300%(예배를 새롭게 기도하고와라. 기도새롭게 되어야 한다. 언약은 완성되었기에 기도가 답이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운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 말씀운동을 계속 넓혀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 되기 전에 받은 말씀이다.
2)이사야 43장 18-19 이전것은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할것이라고 했다. 이 말씀을 꼭 안받는다고 해도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옛일은 생각할 필요없다. 과거를 무시하라는것이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 잡고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된다는것이다. 과거에 잡혀 있지 않고 과거를 정복할 만큼 현재에 복음으로 정복해야 한다.
3)언약이 들어오면 즉시 권세가 나타난다. - 언약으로 표현하는 다양한것들이 있다.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적으로하나님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도 권세 영권이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즉시로 정복이다. 지금 이제 들어왔기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딱 들어오면 정복이다. 믿음이 생긴다. 그것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생긴다. 결국 끝까지 기도하여 거기까지 도달하겠다는 각오가 생긴다. 요셉은 꿈이 들어온 이후에 이것은 하나니님의 메시지야 답이

들어왔다. 이것은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야, 이 순간 언약이 되었기에 앞으로 무슨일이 일어나도 필요없어 정복이다. 어떻게 되어질런지 구체적인것 몰라 일단 전체적으로 정복이야 끝났다. 이것이 언약이고 언약잡은자의 특징이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한권사가 진실한 모습으로 가면 이렇게 될줄 믿는다. 자세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한게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은 필요없으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냐? 근본적으로 언약이 되고 내가 죽어야 한다. 어떻게 죽어 ?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노력, 악으로 죽는게 아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따라 갈수 있게 된다. 이것이 안되지면 못 따라간다. 뭔가 마음에 들떠있다. 동기에다가.. 기타 등등.. 안죽어서 그렇다. 예배가 왜 안되냐? 지가 안죽어서 그렇다. 지가 죽으면 예배되고 기도하고 싶고 지가 안죽으면 각종 생각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에 방해중 첫번째는 예배드리기 싫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근본적인 메시지를 터치를 했다. 이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실행할까 이것이 300%이다. 어덯게 따라갈까 그걸 말한것이다. 300% 저는 시대적인 또다른 단어 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 300% 언약300% 시대적인 단어 또 하나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4)기도300% - 이것이 정복을 하는 비밀이다. 결국 정복이다. 세월이 갈 수 있다. 그 정신이 300%정신이다. 그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체험한 분이 한마디로 요약해서 단어로 딱딱 던지는것이다.그래서 자주 이야기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시대에 태어났다.

2.언약궤를 따라간 사람 - 언약의 상징이니 따라가야 한다. 말씀의 요약이 언약이다. 여호수아 3장에 이야기가 나온다.
1)마른땅을 건넜다. -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지 세밀하게 말씀하셨다. 중요한 단어
2)언약궤를 맨 제사장 - 언약궤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매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것이다.
내가 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3)수6장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영적싸움의 표본이다.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것이다. 그냥 언약궤 메고 도는것 뿐이다. 그게 기도이다. 왜 예배냐? 이것으로 끝내겠다는것이다.
예)과거에 내가 미국와서 그전에도 그랬는데, 예배 하나로 기도 하나로 끝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때 제가 몸에 느낌이 열이 나는 것이다. 언약을 모르고 결심하면 허리가 자주 아팠다고 했잖은가 왠지는 몰라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속에서 열이 나는 느낌이 드는것이다. 대단한 긍정적인게 아니고 무언가 내 마음에 들어와지지 않고 시원하게 언약이 안되어지지 불편한 상태인것이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어 졌다. 지금은 이런 단어를 들으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야되. 이거 하나로 정말로 끝이다. 믿음, 생각이 전과 달라졌다. 또하나 육신적으로 생각해보면 왜이리 시간이오래 걸니나? 또 생각해보면 감사한것이 그래도 복음이 아니면 이런 진도라도 나갈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언약궤가 필요하다.
4)말세 시대이 언약궤 - 그리스도의 고백, 부활메시지 4개 , 237 치유, 서밋,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까 아침, 낮, 밤에 기도안에 들어갈까? 그게 300%.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라 시작이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가 시작이다.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당장 그때부터 바뀌게 된다. 바뀐게 지속이 되어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수있다. 시작만 되어도 굉장한 은혜가 있다. 그냥 시작만 해도 즉시로 정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사람을 낚는 어부

3.사람을 낚는 어부 - 우리가 고기를 낚아 뭐하겠는가? 물론 많이 낚으면 좋지만 우리는 사람을 낚아야 한다.
1)예수님은 제자 부터 부르셨다. 과거에는 이것 읽어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느날 제자라는 단어가 들어온 이후부터 대단하다 어찌 제자부터 부를 수 있는가? 물론 내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야겠지만 저는 생각도 못했다. 공생애 시작이 제자 부르는 것이다. 물론 그전에는 마4장에는 시험당하고 기도이고 뱀머리리 박살내는게 먼저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 그렇지 답이 있으니까 먼저 제자를 부르신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가 내용이 있으니 부르신것이다. 어디에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런 그림이 없으니 제자라는 단어를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어 졌다. 지금은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하나, 무슨 메시지를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해도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다. 성경공부 시간에 사도행전을 하고 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상당한 그림이 있는 분들은 도전이 될것이다.
2)막3:13-15
3)요15:16 너희가 나를 선택한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선택했다.
그이후에 읽어보면 너희가 가서 열매를 얻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구하는것을 받도록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 가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는 전도 열매도 있고 우리의 기도응답도 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따라가는 길인데 어떻게 하면 따라갈수 있을까?
3)현실적인 방법은 묵상이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고 소원이다. 이것이 따라가는 방법이다. 이거 없이는 안된다. 겉돈다. 이것이 되어 하나님의 단어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시작을 할 수 있는것이다. 제 경험으로 이야기 하면 열심히 다락방 전도도 전부 다 했는데 알고 보니 방황했다는 세월을 보낸것이다. 방황은 아니지 세상에 비하면 전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황인가? 다락방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방황인가?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되었으니 끈이 없는것이다. 있는데 영원한 끈. 이것이 마음에 연결이 안되어졌다. 그러면 방황했다고 말해야 양심이다. 청결한 양심까지 갈것도 없다. 그냥 양심적으로 이야기 해도 나는 아니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수 있는가? 이것을 푸는 방법이 묵상이다. 말씀을 생각하라 그 말씀을 쭈욱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다. 이것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온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것이다. 믿음만해도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믿음이지 느낌이 아니다. 이것이 통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다. 중요하다. 묵상시대에 이런 단어가 있다.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그 묵상시대가 아니다. 사단의 역사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냐 묵상시대 큰거 이야기 한다.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것은 아주 작은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것은 은혜이다. 노력으로 안되기에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4)뜻을 정한 어부가 되는것이다. 그냥 어부 일을 하면 바깥으로 보면 어부이다. 그냥 전도를 하고 있으면 바깥으로 보면 전도자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뜻이 통하지를 않았어. 양심적으로 이야기 하면 아직 어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것은 뜻이 통했다는것이다. 이 사람에게 오는 다음 단계의 결과가 있다. 조용하게 정복한다. 또하나 있다 아무 말없이 사람을 살리는것이다. 이것이우리가 가야할 내용이고 따라가야 활 내용이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복음을 위해서 너는 고난을 받으라는것은 엄청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다. 디모데는 바울과 아주 마음이 통한자 아닌가? 바울이 이야기 한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보는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다. 그 이후에 쓴 단어 두개가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이다. 그 이후에 감옥에서 그를 보고 싶어했다. 너는 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제 생각에 디모데가 이 편지를 읽고 울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같은 사도바울이 무슨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지 전달이 되었을것이다.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많이 하는거 중요하지만 가슴이 중요하다.

4.결론

1)망대 여정 이정표 아침, 낮, 밤 - 우리가 들은 메시지이고 우리의 기도가 여기를 향해 가야 하고 당연한 우리의 미래이다.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할때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구나 생각했다. 2000년 1월 9일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도 그랬다. 메시지 중심이 항상 기도였다. 이것이 갈 수록 더 심해졌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기도제목을 계속 이야기 한다. 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다. 여정에 대한 기도제목은 아주 분량이 많다. 이것을 처음 부터 메시지한지 오래되었기에 메시지가 쌓여있는 사람이어야 될수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중요한것이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면, 10가지 발판을 생각을 해보라.그것을 늘 고백하면 인생여정에 대한것도 많이있다. 그것을 매일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제가 마음에 이것이 62까지 갔다. 보통이야기가 아니다. 분량이 많아서 우리의 영적한계를 뛰어 넘었다. 이제 내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우 그런 부분에서 300%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 이런것들이 딱 마음에 잡앗다. 이것을 24시간, 놀랍다.

예) 누가 24를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신이다. 신처럼 된것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정도로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로 가야 된다. 저는 아직도 여기에 부족해서 메시지속에 말을 못한다 어설프게 이야기 하면 들킬것이니까 그러나 내 속에서는 늘 생각을 하고있다. 하나님이 한개씩 그어 주실것이다. 우리가 가야할 미래이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세계이고 우리의 참된 미래는 영적미래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인것이다. 눈에 안보이는것이눈에 보이는 모든것을 결정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방법이다. 따라가야 한다. 이것 인정하고 그리로 가야 한다.

2)때로는 사람을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하는경우도 있다. 아침에 2사람 정도 이야기 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내면적으로 갱신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전도자이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깜작 놀랄정도로 웰컴이 되어야 한다. 벽이 느낀다고 말한 사람은 그냥 쳐다보고 있어 그냥. 우스게 소리로 다 영적문제 아이가! 고쳐야 한다. 그렇다. 사람이 전도해본사람은 안다. 길거리에 가서 전도해보면 알것이다 방문이던 교회 왔던 이것은 기적이다. 그런데 진짜 왔는데 놓쳐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바꾸시라. 개인적은 1;1 치유이다. 한명이 변화가 시작인것이다. 마음에 딱 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라.

3)가장 쉽게 정복하는 길이 따라오라. 자꾸만 정복을 할려고 하면 안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라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신다. 내가 생각할것은 십자가, 이것을 내게 적용을 해야 하고 묵상하는것이다.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우리가 바뀌져야 할것은 영적인 것이다. 내면적인것이다. 이것이 내 바깥을 바꾼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꾼다. 이 원칙은 절대로 꺼꾸로 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이 렇게 하신다.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연약하다.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면 안된다. 영적문제 있는 사람들을 절대 비난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나도 똑같으니까? 한번씩 보면, 우리교회는 성도가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한번씩 어떤 안좋은 거 한번씩 들린다. 그런거 마져도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에게 무슨일이 일어났어 말이 안되는 것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것이다. 남을 판단하는것 이것은 아주 죄송한 것이다. 그러면 절대 안되는것이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면

그런 소리 못한다. 이런 저런 모습들 내 동기가 들어나는것 조심해야 한다. 사역자나 중직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전도자의 근본이다.
오늘 사도바울이 왜 디모데를 좋아했는 가 써놓았다.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다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다 그렇다. 우리의 육신적 행위를 본다. 내 육신적 행위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내면에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되어야 한다. 그 방법이 뭐냐니까 말씀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말슴이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온다. 이때부터 진짜 인간이 된다. 그전에는 망나니이다. 말이 어디에 묶여서 끈이 있어야 한다. 이끈이 풀린것을 보고 망나니 같다고 한다. 사람이하나님과 마음에 통하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 한다고 해서 망나니 내 인생 전체 복음 전한다고 해도 전부 방황이다. 이렇게 되어지는것이다. 거기서 나오는것이 진짜 복음이다.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바란다.

기도
하나님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시대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